

# 한국과 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Daily Hassel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池金洙

조교수 李英煥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朴星玉

대전실업전문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韓宗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 : Chee, Keum-Soo

Assistant Prof. : Yee, Young-Hwan

Dept. of Home Management, Taejeon University

Associat Prof. : Park, Sung-Ok

Dept. of Home Management, Taejeon Vocational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 : Han, Jong-Hye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1996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 본 연구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미국의 경우 5학년과 7학년에 해당되는 10세-12세로 선정하였다. 청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령, 신체적·생리적·심리적 성숙도 등 다양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청년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는 12-13세에서 24-25세까지를 청년기로 보고,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때를 청년기로 본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p322).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시기에 걸친 연구대상을 구분하여 명명하기보다 '아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erceived level of daily hassel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7 Korean and 121 American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5th grade), 156 Korean and 90 American in middle school(7th grade). Daily hassels scale by authors consisted of the school situation, family situation, self, personal relationship and extra situation stres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Korean children experienced more stress than American children in school situation, self, personal relationship and extra situation stress.

2. The perceived level of daily hassels scores among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3.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d more stress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chool situation. Especially for the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situation was the most stressful factor.

4. For the stress from personal relationship, Korean children experienced more stress than American children in every items except problems with boyfriends and girlfriends.

5. For the stress from extra situation stress, Korean children experienced more stress than American children in every items.

From the result, we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elf-concept and stress coping skills should be provided for Korean children. And more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care should be provided for Korean children, too.

### 1. 서론

최근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특성보다는 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사건 등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스트레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주요한 생활사건에만 초점 둔 것이 대부분이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거의 매순간 경험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사건만큼의 관심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한미현·유안진, 1995). 그러나 일상적 스트레스

는 몇 개가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활사건보다도 더욱 위협적이 되기 쉽다. 근래에 들어 일상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주요한 생활사건보다도 오히려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lahan, Holahan, & Belk, 1984; Zarski, 1984). 따라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사건보다도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거리, 즉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스트레스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아동기의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에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려는 연구(예를 들면 류수영, 1993; 신은영·김경연, 1996; 윤혜정, 1992; 정승희·정영숙, 1996; 천민필, 1993; 최성윤, 1992; 최창호, 1993; 한미현·유안진, 1995)가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점에서는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Gavin과 Furnham(1989)은 초등학교 5·6학년생을 청소년 이전기, 중학교 1·2 학년을 청소년 초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청소년 중기,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 연령을 청소년 후기의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또래집단의 특성을 살핀 결과, 청소년 후기에 이르러서야 가족관계나 친구관계가 안정적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urner와 Mo(1984)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연령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적하였으며,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를 분석한 이영환·박성옥·한종혜(1997)도 중학교 1학년 시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임을 보여 주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며, 독창성이나 개별성보다는 성별에 따른 순응과 학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춘재·곽금주, 1994)은 이 시기의 아동에게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필요한 선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점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세째,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아동을 직접 조사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 평가자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Sorensen, 1993)에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성인의 평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밝히고, 그 요인에 대해 아동 개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째,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은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해로운 환경 상황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중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이다(DuBois et al, 1992).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아동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스트레스 연구에서 비교문화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두 문화에 있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연령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스트레스의 개념과 측정

인간은 누구나 모든 생활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없다. Mason(1975)이 지적하듯이 어떤 연구자는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또 어떤 연구자는 '반응'으로, 어떤 연구자는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다른 연구자는 이들 요인의 결합이라고 보는 등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가족·사회체계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며 또한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사회체제 또는 환경과의 관계'로 정의하는 과정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Monat와 Lazarus(1991)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의 세 유형을 제시하면서, 스트레스 원인으로 알려진 지각된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자극' 또는 '반응'으로 보는 기계적인 관점보다는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계론적 입장을 강조한다.

한편 기존 스트레스 연구는 대부분 생활사건에 관심을 두어 왔다. 스트레스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Holmes와 Rahe(1967)의 생활-사건 척도인 '최근 경험 일람표'에는 주거지 변경, 결혼, 투옥,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43종류의 생활사건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Coddington(1972)은 Holmes와 Rahe의 척도를 더 진척시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사건을 포함하는 '생활사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들 스트레스-사건 척도의 개발 이래, 스트레스는 특별한 생활-변화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1982), 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1981)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스트레스, 또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요 생활사건보다 심리적 또는 생리적 변인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소한 문제거리, 예컨대 시간에 쫓김, 외로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림, 가족들간의 다툼,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소외됨, 나쁜 성적 등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요 생활사건에 비해 별로 극적이지는 않지만 더 보편적이며, 인지적 평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고, 적응에 있어서 더 중요하며, 건강을 더 잘 예측해 주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아동이 무엇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Sorensen, 1993)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아동의 스트레스

Holmes와 Rahe(1967)의 스트레스 척도 형식을 따라 개발된 초기 아동 스트레스 척도(Coddington, 1972; Sarason, Johnson & Siegel, 1978)는 중요 생활사건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상적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Chandler(1985)는 초등학교 아동용 생활사건 척도에 부모 사망·이혼, 장기간의 입원과 같은 중요 생활사건 뿐 아니라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속상한 일,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일, 부모나 선생님께 꾸중듣는 일, 성적 등 어느 아동에게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포함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아동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사건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lom, Cheney, Snoddy(1986)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원인별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하는 87가지 스트레스 사건 중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69항목으로 정신적 경험, 건강·외모, 물리적 환경에 비해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어린 아동의 대인관계는 부모와 가족이 주를 이루지만, 성장하면서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스트레스의 근원도 많아진다. 아동의 환경이 이웃과 학교를 포함하게 되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또래 및 교사와 같은 가족 이외의 성인이 관련된다. 또한 Sorensen(1993)은 7-11세의 42명 아동이 작성한 스트레스 일지를 분석하여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상황·자아·타인 등 3영역, 16개 범주로 묶었다. 이 결과는 Wertlieb와 동료들(1987)가 아동의 스트레스를 자아, 환경, 타인으로 분류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국내의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이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윤혜정(1992)은 학교, 가정, 사회적 관계, 사회 문화요인,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 5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류수영(1993)은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영역과, 학업 문제, 오락 및 여가활용 문제,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 일상생활 문제 등의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한미현, 유안진(1995)은 Felner와 동료들(1988)의 Daily Hassles Questionnaire를 비롯한 국내외 척도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면접을 통해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아동이 속한 가족과 학교 환경은 아동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Schultz & Henchert, 1983).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경부터 아동은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기 때문에(이영환 등, 1997)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높아진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라는 학교 환경의 변화는 아동에게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새로운 대인관계의 형성, 학업 성취의 압력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 III. 연구방법

#### 1. 척도의 구성

한국과 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두 문화에서 진행된 아동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2장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입 시기의 아동은 가족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발달적 변화와 자신에 대한 관심에 기인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학교 상황, 가족상황, 자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타 상황 등 5개 영역<sup>1)</sup>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의 각 항목을 비교하여 공통된 항목을 선정한 후 해당 영역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아동학 관련 전문가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차로 구성된 스트레스 척도를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 두 문화의 아동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의 아동학 전문가 1인<sup>2)</sup>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예비조사를 근거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척도를 완

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척도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 12문항, 학교 관련 스트레스 12문항, 다른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12문항,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12문항, 그리고 기타 6문항 등 다섯 영역, 총 54문항, 5점 리커트 척도이다(표 2 참조).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alpha$ 는 학교 .73, 가족 .83, 자신 .73, 타인 .85, 기타 .89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숙제, 시험, 수업의 내용과 진행 방식 등 일반적인 학교 상황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아동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선택이나 통제의 여지가 없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반영한다.

② 가족: 집안일이나 부모의 기대와 같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부담감, 가족으로부터 계획이나 진행중인 활동이 예측없이 방해되거나 간섭받는 것, 하기 싫은 일을 강요 받는 것, 경제적 문제나 가족원에 대한 걱정, 부모의 다툼이나 부모의 체벌 등 가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③ 자신: 학업, 사회적 수용, 신체 외모 및 운동 영역에서의 자아에 대한 지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본 영역의 항목선정시 선행 스트레스 연구 뿐 아니라 Harter(1985)의 Children's Self-Perception Profile을 참고 하였다.

④ 관계: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환경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orensen의 분류에 따라 관계 범주로 구성하였다. 아동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친구관계를 비롯하여 형제 자매 관계,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학교 선생님과 인한 스트레스(교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 범주와 독립적으로 구분하였음) 등을 포함한다.

1)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한미현(1995)과 Sorensen(1993)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영역을 설정하였다. Sorensen (1993)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상황·자아·타인 등 3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와 가족이 아동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근원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Sorensen(1993)이 분류한 상황에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을 학교 상황과 가족 상황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한미현, 1995)에서 아동의 주변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하나의 범주로 구별되며, 미국의 경우 병원이나 치과 방문등이 아동의 스트레스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묶어 기타 영역으로 구별하였다.

2)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척도의 구성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San Jose 대학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의 Professor Chung Soon, Kim에게 감사드린다.

⑤ 기타: 교통문제나 주거환경, 학교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병원이나 치과에 가는 부담 등을 포함한다

## 2. 연구대상 선정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의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California, Chicago, New York<sup>3)</sup>에 소재한 초등학교(5학년)와 중학교(7학년)에 연구의 취지를 알리는 E-Mail을 띄웠다. 그 결과 5개 학교의 교장과 접촉이 이루어져 Permission을 받았다. 1997년 1월 12일에서 30일 사이 연구원이 현지에서 가서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후에 학교장이 질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우송하여 주었다. 회수된 질문지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응답 아동 대부분이 중류층에 속하는 백인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중류층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대덕 연구단지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임의로 선정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나 라	한 국		미 국	
		N	%	N	%
학년	초등 5학년	157	50.2	121	57.3
	중 1학년	156	49.8	90	42.7
성	남 아	156	49.8	102	48.3
	여 아	157	50.2	109	51.7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통하여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3)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고루 표집하기 위해 이 세곳을 선정하였다.

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 전체 스트레스 점수와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알기 위해 평균을 구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한국아동의 경우 다른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교와 가족 관련 영역, 자신에 관한 영역, 기타 영역의 순이었다. 미국아동의 경우는 가족과 학교 관련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은 다른사람과의 관계, 자신에 관한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의 순이었다.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영역별로 2.55 - 2.30의 범위를 보였으며 전체 스트레스 점수는 2.43이었다. 미국 아동의 경우는 2.35 - 1.89의 범위를 보였으며 전체 점수는 2.31이었다.

〈표 2〉 아동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구분	국가별 평균(표준편차)		학년별 평균(표준편차)	
		한 국	미 국	5학년	중 1학년
학 교		2.45(.51)	2.34(.50)	2.30(.53)	2.51(.46)
가 족		2.45(.58)	2.35(.68)	2.40(.62)	2.42(.63)
자 신		2.40(.62)	2.00(.64)	2.19(.69)	2.30(.61)
타 인		2.55(.69)	2.03(.67)	2.37(.79)	2.32(.67)
주 변		2.30(.65)	1.89(.59)	2.12(.69)	2.16(.63)
전 체		2.43(.48)	2.13(.49)	2.29(.54)	2.36(.47)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sup>4)</sup>.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한국아동이 미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영역별로도 학교, 자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타 등,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영역에서 한국아동이 미국아동보

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학교에서는 나라에 따른 주효과 뿐 아니라 학년에 따른 주효과도 있어,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다. 주변환경 영역에서는 나라 및 학년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나라별, 학년별 스트레스의 차이를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표 3〉 국가와 학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이원변량분석표

스트레스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학교	국가	1.16	1	1.16	4.76*
	학년	5.26	1	5.26	21.60***
	상호작용 효과	.25	1	.25	1.01
	Residual	120.146	493	.24	
	total	127.091	496		
가족	국가	1.07	1	1.07	2.77
	학년	.04	1	.04	.11
	상호작용 효과	.13	1	.13	.34
	Residual	194.44	503	.39	
	total	195.72	506		
자신	국가	19.32	1	19.32	49.46***
	학년	1.06	1	1.06	2.72
	상호작용 효과	.19	1	.19	.48
	Residual	198.77	509	.39	
	total	220.02	512		
타인	국가	33.28	1	33.28	70.88***
	학년	.67	1	.67	1.43
	상호작용 효과	.39	1	.39	.83
	Residual	235.69	502	.47	
	total	269.61	505		
주변	국가	21.24	1	21.24	54.33***
	학년	.07	1	.07	.19
	상호작용 효과	2.37	1	2.37	6.06*
	Residual	201.71	516	.39	
	total	225.62	519		
전체	국가	9.78	1	9.78	41.22***
	학년	.35	1	.35	1.46
	상호작용 효과	.03	1	.03	.14
	Residual	110.81	467	.24	
	total	121.08	470		

2.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

전체적 스트레스와 학교, 자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타 등 4개 하위영역에서 한국아동이 미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항목별 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의 스트레스 항목별 비교

영역	항목	한국	미국	t값
학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함	1.88	2.35	-6.09***
	화장실 가기 위해 참아야 함	1.98	1.68	3.54***
	쉬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음	2.42	2.07	4.03***
	수업때 선생님 도움 부족	2.33	2.25	.87
	신체적 체벌, 단체 기합	2.78	2.51	2.82**
	성적이 가장 우선시 됨	2.82	2.54	2.92***
	시험부담	3.03	2.40	7.09***
	전학	2.32	2.81	-4.76***
	선생님께 말할 기회 부족	2.14	2.19	-.63
	숙제부담	2.24	2.35	-1.31
	수업내용의 난이도 문제	2.46	2.06	4.74***
	친구들 앞에서 꾸중 들음	2.96	2.64	3.48***
가족	부모의 다툼	2.81	2.50	2.60**
	집안일에 대한 부담	1.90	1.90	.00
	가난	2.23	2.22	.11
	부모님의 나에 대한 간섭	2.47	2.32	1.57
	가족원 중의 건강문제	2.59	2.58	.11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2.94	2.56	4.32***
	친척이 같이 사는 것	1.63	1.75	-1.41
	이사	2.00	2.47	-4.98***
	가족의 지나친 기대	2.65	2.38	3.05
	부모의 체벌	2.40	2.43	-.36
가족으로부터 비난	2.76	2.57	1.89	
하기 싫은 일의 강요	2.94	2.47	5.15***	
자신	뚝뚝하지 못한 것	2.62	2.17	4.67***
	책임감이 부족한 것	2.55	2.12	5.04***
	학업성적이 낮은 것	2.94	1.73	13.56***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함	2.63	1.73	10.76***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걱정	2.56	1.93	6.90***
	친구가 충분히 없는 것	2.24	2.12	1.23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음	2.22	1.93	2.90**
	또래에 비해 너무 뚱뚱함	2.21	1.89	3.29***
	나의 외모	2.28	2.38	-1.09
	신체의 변화	2.04	2.19	-1.64
몸의 허약	2.04	1.86	2.08*	
운동능력의 부족	2.49	1.86	6.58***	

〈표 4〉 계속

영역	항 목	한국	미국	t값
관계	친한 친구와의 다툼	2.84	2.33	5.58***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	2.68	2.13	5.85***
	이성 친구와의 문제	2.34	2.22	1.10
	형제자매와 싸움	2.43	2.14	3.18**
	다른형제보다 부모 관심 부족	2.44	2.18	2.69**
	형제자매와 우열 비교당함	2.57	2.03	5.65***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	2.54	2.12	4.16***
	가족과 보내는 시간 불충분	2.30	1.54	8.99***
	가족이 내 생각을 이해 못함	2.59	1.73	9.18***
	선생님께 차별 받는 것	2.82	1.98	9.07***
	선생님과 친밀하지 못함	2.35	1.97	4.26***
	선생님께 인정받지 못함	2.72	1.99	7.74***
기타	교통의 불편	2.33	1.98	3.95***
	마땅히 뛰어놀 곳이 없음	2.83	1.92	4.20***
	집주위의 소음	2.47	1.88	6.68***
	학교주위의 소음	2.35	1.81	6.22***
	병원에 가는 것	2.15	1.80	4.03***
치과에 가는 것	2.25	1.93	3.33**	

\* p &lt; .05 \*\* p &lt; .01 \*\*\* p &lt; .001

먼저 학교관련 영역을 보면 미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항목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과 전학 등 2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한국 아동은 성적이나 시험부담, 수업내용과 같은 학업관련 문제에서 미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또한 꾸중 받는 것, 화장실음 가기 위해 오래 잠는 것, 쉬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수업의 진행 방식에 의해서도 한국 아동은 미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항목별 순서를 비교해 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시험부담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꾸중 듣는 것, 성적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신체적 체벌이나 단체 기압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의 경우 전학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친구들 앞에서 꾸중듣는 것, 성적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신체적 체벌과 단체 기압, 시험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아동은 가족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항목별로 보면, 한국 아동은 미국 아동에 비해 가족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다툼으로 인해 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아동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 중 이들 세 항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 항목은 이사에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자신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학업성적이나 똑똑한 것과 같은 인지영역, 키가 작거나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의 신체적 외모, 운동능력, 사회관계 등 전반적인 자아관련 항목에서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국가별로 스트레스 순위를 보면 한국아동의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것, 똑똑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미국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외모, 신체적 변화 등과 같은 신체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다른 항목에서보다 높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성친구와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한국 아동이 미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 한국 아동의 경우 친한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선생님께 차별받는 것, 선생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 선생님과 관계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각각 2, 3순위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의 경우도 친한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기타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각 영역 모두에서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특히 한국아동은 마땅히 뛰어 놀 곳이 없는 것에 대한 항목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54개 항목 중 한국아동은 시험부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꾸중 듣는 것, 가족으로부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 하기 싫은 일(학원등에 가는 것)을



하라는 강요, 학업 성적 의 순이었다. 반면 미국 아동의 경우는 전학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친구들 앞에서 꾸중 듣는 것, 가족원의 건강문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가족으로부터의 비난의 순이었다.

3. 학년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

〈표 2〉에서 중학교 아동은 초등학교 아동보다 학교관련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항목별로 분석해 볼때도 〈표 5〉에서 보듯이 수업내용, 성적, 시험, 숙제 등 학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표 5〉 연령에 따른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의 스트레스 항목별 비교

영역	항 목	5학년	6학년	T값
학교	화장실 가기 위해 참아야 함	1.76	1.97	-2.49*
	쉬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음	2.16	2.41	-2.91**
	수업때 선생님 도움 부족	2.09	2.53	-5.61***
	성적이 가장 우선시 됨	2.48	2.96	-5.23***
	시험부담	2.62	2.95	-3.67***
	선생님께 말할 기회 부족	2.08	2.25	-2.16*
	숙제부담	2.13	2.45	-3.96***
	수업내용의 난이도	2.13	2.48	-4.32***
가족	집안일에 대한 부담	1.81	2.02	-2.87**
	이사	2.43	2.66	-2.74**
	가족의 지나친 기대	2.50	2.30	2.03*
자신	똑똑하지 못한 것	2.32	2.57	-2.62**
	학업성적이 낮은 것	2.32	2.61	-2.80**
관계	나의 외모	2.07	2.59	-5.50***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	2.49	2.24	2.47**
기타	가족과 보내는 시간 불충분	2.09	1.90	2.08*
	병원에 가는 것	1.91	2.12	-2.53*

\* p < .05 \*\* p < .01 \*\*\* p < .001

〈표 2〉와 〈표 5〉를 보면 자신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항목별로 볼 때 똑똑함, 학업 성적과 같은 인지적 자아에 관한 항목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가족이나 관계

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지만 항목별로 볼 때 가족의 기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 가족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4. 학년에 따른 한국과 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두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학년별·국가별로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한국아동이 미국아동보다 전체적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두 문화 아동이 학년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경우 학교와 가족 관련 스트레스는 두 문화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 스트레스, 다른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주변 환경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한국아동이 미국아

〈표 6〉 학년에 따른 한국·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교

학년	영역	한 국		미 국		T값
		M	SD	M	SD	
5학년	학 교	2.32	.56	2.27	.49	.84
	가 족	2.45	.59	2.32	.65	1.64
	자 신	2.34	.68	1.98	.65	4.41***
	타 인	2.61	.77	2.03	.68	6.33***
	주 변	2.24	.73	1.95	.59	3.48***
	전 체	2.40	.55	2.12	.49	4.00***
1학년	학 교	2.57	.43	2.42	.50	2.42**
	가 족	2.44	.57	2.38	.72	.69
	자 신	2.46	.54	2.02	.63	5.74***
	타 인	2.49	.60	2.02	.67	5.54***
	주 변	2.37	.55	1.81	.59	7.50***
전 체	2.47	.41	2.15	.51	5.20***	

\* p < .05 \*\* p < .01 \*\*\* p < .001

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특히 다른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영역은 한국과 미국 아동간에 가장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었으며, 한국아동은 5개 영역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영역이었다.

중학교 아동의 경우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두 문화 모두에서 5개 스트레스 영역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 영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때에는 두 문화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중학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 아동이 미국아동 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자아, 관계, 주변 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도 한국아동이 미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주변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두 문화 아동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관련 스트레스는 학교 관련 스트레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영역이었지만,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두 문화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과 〈표 6〉에서 보듯이 주변 환경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으나 국가와 학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미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아동과 중학교 아동간에 주변 환경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보다 주변환경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차이를 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동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두 문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크게 가족, 학교, 자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기타 주변 환경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영역, 54개 항목으로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여 한국과 미국의 초등 5학년과 중 1학년 남녀 아동 514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보다 전체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영역별로 볼때도 학교, 자

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주변 환경 등 가족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스트레스를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정의한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아동이 상대적으로 미국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아동과 미국 아동 모두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다.

셋째, 학년에 따른 전체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영역별로 볼 때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아동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한국과 미국 아동 모두에게 5개 영역의 스트레스 중 학교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문화에서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과정에서 학교상황이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한국 아동은 성적이나 시험부담, 수업내용과 같은 학업관련 문제 뿐 아니라 화장실을 가기 위해 오래 참는 것, 쉬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융통성 없는 일관적인 수업의 진행 방식에 의해서도 미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교 현장이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째, 다른사람과의 관계 관련 영역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형제지매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이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인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 사춘기에 진입하는 한국 아동에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 훈련 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기타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각 영역 모두에서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반영한다. 특히 한국아동은 마땅히 뛰어 놀 곳이 없는 것에 대한 항목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섯째, 전체 52개 스트레스 항목 중에서 미국 아

동이 한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항목은 이사, 전학,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등, 세 개의 항목이었다. 가족의 이사는 학교의 전학을 동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중 한국 아동의 경우 연구단지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일단 정착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전학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이사와 전학에 관련된 항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가 미국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한국의 경우 이사나 전학의 주요인은 부모의 직장 변동이나 주거지 변동(전세의 변동 또는 주거지 구매)과 같은 이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모의 별거나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아동의 거주지 변동이나 학교 전학이 많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본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아동에 있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한국 아동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수업 방식의 차이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발표를 하며 수업을 이끌기 보다는 교사 주도적 수업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대상 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교사 대 학생 수가 적으며(본 연구대상의 경우 1개 학급이 평균 20명) 방문하였을 때 수업의 진행방식은 학생의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의 문화적 차이가 본 연구 결과에 잘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 비해 성적을 강조하는 확실적인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에 진입하는 시기의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한 과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아동은 자아, 대인관계 영역에서도 미국 아동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방과후 활동 내용은 학교수업내용과 관련된 각종 학원(수학, 영어, 국어 등)에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방송공사가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평일 여가시간

은 초등학생이 4시간 59분, 중학생이 4시간 12분, 고등학생이 3시간 45분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여가시간은 6시간 16분, 전 국민의 여가시간은 6시간 6분이라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이용교, 1997 재인용). 즉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시간은 학업시간의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 사회성 발달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아동의 경우 본 연구자가 방문한 학교의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이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참여, 연극활동, 음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시간 확보 문제, 아동의 놀이공간 확대, 건전한 놀이문화의 개발문제에 대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만을 조사하였으나 청소년기의 시작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는 적절하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좌절의 요인이 된다. 또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는 스트레스의 정도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두 나라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두 문화 아동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족, 학교, 사회 환경변인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차이에 관한 비교문화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 2) 신은영·김경언(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4호, 33-47.
- 3) 윤혜정(199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 석사논문.
  - 4) 이영환, 박성옥, 한종혜(1997).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5호.
  - 5) 이용화(1997).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공간. 한국 아동권리학회 1997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55-74.
  - 6) 이춘재, 곽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1):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7, No.2, 119-135.
  - 7) 정승희·정영숙(1996). 초등학생이 일상 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42집. 자연과학편, p.237-243.
  - 8)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89). 인간발달. 교육과학사.
  - 9)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10) 최성윤(1992).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11)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12)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4호, 49-64.
  - 13) Blom, G. E., Cheney, B. D., Snoddy, J. E.(1986). Stress in Childhood. Teacher's College Press, U. S.A.
  - 14) Chandler, L. A.(1985). Assessing Stress in children.
  - 15) Coddington, R.(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A survey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16)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17)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18) Gavin, L. A. & Furman, W.(1989).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827-834.
  - 19)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20) Holahan, C. K., Holahan, C. J., & Belk, S. S. (1984). Adjustment in aging: The role of life stress, hassles, and self-efficacy. *Health Psychology*.
  - 21)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22)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 23)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Publishing.
  - 24) Monat, A., & Lazarus, R. S. (1991).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3rd.)*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 25) Mason(1975). A historical view of the stress field. Part 2. *Journal of Human Stress*, 1, 22-36.
  - 26) Sarason, I. G. Johnson, J. H., & Siegel, J. H.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27) Sorensen, E. S.(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28) Schultz, E. W., & Henchert, C. M.(1983). *Child Stress and the School Experience*.
  - 29) Turner, S. R. & Mo, L.(1984). Chinese adolescents' self-concept as measured by the Offer Self-

- 
- Image Questionnai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131-143.
- 30) Wertlieb, D., Weigel, C., & Feldstein, M.(1987). Measuring children's cop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548-560.
- 31) Zarski, J. J.(1984). Hassles and health: A replication. *Health Psychology*, 3, 243-251.